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20년 1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 14.(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1. 14(화)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
담당과장	이재식 과장(044-203-4520)	담 당 자	조원철 사무관(044-203-4534)

일몰된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사업의 후속사업 재가동

-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2020년 신규사업계획 공고 -
- 4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고, 4년간 796억원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15일(수),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Plus)'의 '20년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개요 >

○ **(사업목적)**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 **(사업기간/총사업비) '20년~'24년**(신규선정기준) / 6,277억원 (**국비 4,239억원**)

○ **(지원분야)** 산업부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분야** (참고1)

* 미래수송(4), 스마트 건강관리(3), 스마트 생활(5), 에너지·환경(6), 스마트제조(7)

○ **(지원규모) '20년 199억원**, 2개 트랙, **45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지정**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38개) : 425백만원/연 X 최대 4년 지원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7개) : 526백만원/연 X 최대 4년 지원

□ ATC+ 사업은 '03년부터 '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이하 "ATC")'의 **후속사업**으로,

○ ATC사업은 산업부 타 R&D 대비 **특허**(1.4배), **사업화성공률**(1.6배), **매출**(2.7배), **고용실적**(3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특히 국가 R&D사업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00년 9,070개 → '19년 40,856개)

○ 다만,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 R&D 사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설정함에 따라, ATC사업의 **'연구소 육성 전용 R&D 사업'으로서 차별성이 약화**되고,

- 중점 육성분야가 모호하여 개별 기업 단위로 성과가 제한되는 등 **사업 전략성 부족**을 이유로 '19년 일몰된 바 있다.

○ 이에 산업부는 ATC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기획**하였고, 작년 3월에 후속사업인 **ATC+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 산업부는 ATC+ 사업을 명실상부한 '기업 부설연구소 전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동 사업을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 신청 조건을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 기존 '기업매출 중심'의 신청 조건은 기업 역량과 관계되는 요소로,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을 **주요 신청 조건**으로 판단한다.

○ 이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은 ①**기업부설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②부설연구소 **등록 인원 8인 이상 30인 이하**, ③**R&D 집약도 4% 이상**(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2%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기존 ATC 참여조건 : 매출액 100억원↑, 수출비중 10%↑, R&D집약도 3%↑.

○ 특히, **지원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인원 8 ~ 30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 군**을 **집중 지원**한다.

2 연구소 자체 R&D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 신청 'R&D 과제'에 대한 평가 외에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하여,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R&D 역량 강화를 하도록 유인**한다.

* 과제평가(45%), 연구소성장전략평가(55%, 평가과정에 연구소 현장실태조사 실시)

○ 연구소의 **연구인력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한다.

* ex. 신규인력 인건비로 5천만원 사용시, 기존인력 인건비를 1억원까지 현금지원 가능

○ 또한, 사업비에서 과제 지원 외에도 **연구소 역량 향상에 필요한** 해외 선진 개방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3 외부 우수 R&D 역량 습득을 위한 개방협력을 강화하였다.

○ 기존 ATC가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한 반면, ATC+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여,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역량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 이를 위하여, 주관기관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또한, 1개 이상의 해외 선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선진 연구인력**이 일정기간 국내 주관기관에 설치한 연구공간에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다.

4 산업부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 전략성을 강화하였다.

○ **지원 분야**는 '19년 3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분야***(참고1)로 하여 **사업 전략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미래수송(4), 스마트 건강관리(3), 스마트 생활(5), 에너지·환경(6), 스마트제조(7)

○ 특히, 25개 전략투자 분야 내에서 **'소재·부품·장비'와 "A.I." 및 "빅데이터" 관련 과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해외 수출규제 및 4차 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부는 ATC+ 선정 기업에 대해 **IP R&D, 특허기술동향조사**(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및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취업 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 **이종기업간 기술교류회, 지원인력 실무교육**(ATC 협회 주관)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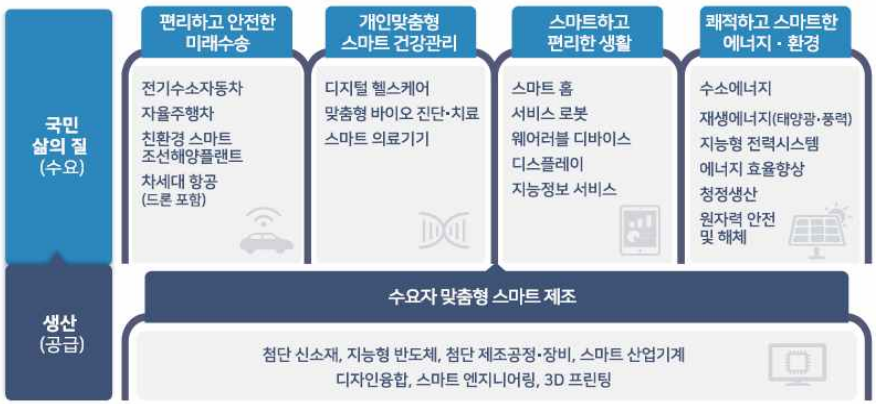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1월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공고해 **금년 2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접수**를 받고, 4월 중 45개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참 고】 1. 산업부 R&B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
2. 기존 ATC 사업 대비 개선사항(요약)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조원철 사무관(☎044-203-45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산업부 R&B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



참고2 기존 ATC 사업 대비 개선사항

구 분	ATC	ATC+
지원 분야	전 분야 (중점육성분야 모호)	산업부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분야
참여조건	기업 매출 중심	기업부설연구소 역량 중심
평가요소	R&D 과제 (100%)	R&D 과제 (45%)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55%)
과제 참여연구원	연구소 소속 외에 기업내 타부서 소속인력 참여	연구소 소속 인력만 참여
사업비 지원	과제 수행 소요비용	과제수행 소요비용 연구소 역량강화 비용
컨소시엄	기업 단독참가 허용	주관기업 외에 산학연 1개 이상 참여